

네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작성일 : 2013. 9. 4(수) 새벽 1시

작성자 : 주은혜

(월요일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고 있지 않아

차가 천천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천천히 가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

제 차를 뺏어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잠에서 깬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서 혼체로 꾸 꿈임을 알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니

내 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구나.’하며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낮에 기도를 하는데

성자께서 그 꿈을 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너에게도 해당되고, 캠퍼스에게도 해당되며,

섭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꿈이다.’하시며,

‘꿈에서 본 좋은 스포츠카는 이 시대 천운이다.

선생의 말씀이며, 시대 혜택을 말한다.

또한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는 것은,

시대 혜택을 받고도 시대 혜택만큼,

삼위가 돕는 만큼 너희가 행하지 않고,

불이 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너희가 행하지 않으니 사탄도, 이 시대를 불신하는 자도,

타 종교 사람들도 이 시대 혜택을 뺏어 가려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고 말씀하시며

섭리사 전체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 받아췌었습니다.)

* 성자의 말씀 *

제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섭리사 차원으로 먼저 보자.

사랑하는 섭리야.

너희에게 매일 전해지는 말씀은

시대 말씀으로,
선생 외에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차원 높은 말씀이다.
매일매일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너희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 자체가 새로운 성서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구원의 방주를 타는
시대 천운을 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런 거대한 천운 앞에서
행하지 않음으로 사탄에게, 또 타 종교에게
자꾸만 빼앗길 틈을 주고 있음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최침단의 말씀을 주었어도
너희가 그 말씀을 씹먹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째, 사탄이 너희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고로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려 하고,
너희가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함을 알아라.
둘째, 타 종교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희가 달리고 있는 앞길을 막아
이 시대 말씀을 가져가려고 하고,
축복을 빼앗으려 함을 알아라.

선생이 자꾸 말씀을 외쳐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씹먹어라, 활용하라 외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빼앗기고,
가치를 아는 자들이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니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타 종교에서 가져가서 외치고,
너희가 너희의 조건으로
이 말씀과 이 섭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나 노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냐.

사랑하는 섭리사야.
나는 선생이 있는 이 섭리역사에
시대 혜택과 구원의 혜택을 주고,
직접 역사하며 만나고 있다.
고로 너희는 가장 높은 차원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이다.

이 시대 말씀을 빼앗으려 해도
시대 사명자를 빼앗기지 않으면
너희는 섭리도, 이 역사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행하지 않음으로,
또한 너희가 행함에 있어 속도를 내지 않음으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타 종교에 복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역사가 더디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라.

이제 각 교회를 두고 보자.
각 교회는 각 위치에서 달리고 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하여
앞서 나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뒤쳐지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교회는 성장해 나가며
잘되고 형통하는 교회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 성자는
어떤 교회가 잘되기를 바라겠냐.
성자는 모두가 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한 자가
잘되기를 원하고,
조건을 드린 만큼 받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가치를 알고 행하는
교회가 잘되기를 바란다.

고로 큰 교회는 크다고 안주하여
너희가 탄 구원의 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작은 교회는 작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누구나 불이 나게 행하면,
선교로 뒤집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나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시대 말씀으로 인해
뒤집어질 수밖에 없으니
행하는 자가 시대 천운을 탄 자가 되고
행하는 교회가 선생을 모실 수 있는
큰 교회가 될 것이니
모두들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마치자.

너희는 먼저 온 자가 나중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된 이유는
뇌가 굳었기 때문이요, 안일하기 때문이며,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행하고 단련했다면
절대 나중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성을 잃고
더 뜨겁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차를 빼앗기고
걸어서 가게 되는 것이다.

내 사랑들아.
나 성자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먼저 온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순리요, 원칙 아니겠냐.
하지만 너희가 행하지 않고,
뜨겁게 뒤집어져 행하지 않으면
뒤에 온 자는 너희를 좇아온다.
사탄도 너희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너희의 신앙을 빼앗으려 한다.

고로 너희는 긴장하여라.
또한 언제나 최선을 다해 뛰며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1등의 자리라 함은,
이 시대 내가 너희에게 준
시대 혜택과 선생의 말씀이요,
너희의 축복이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행하지 않고 빼앗기게 되면,
빼앗겼으니 낮은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니,
너희가 행하여
모두 축복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도 축복을 주고자 하여도
수고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또, 자신은 언제나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한 자들도 많다.

성자는 노력하지 않는 자와

함께할 수가 없다.

법칙이다.

부르는 자의 성자요,

또한 붙잡는 자의 성자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자의 성자임을

깨달아 알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

오늘 나의 말씀은

너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다.

너희는 뒤를 돌아보며 뛰지 않지만,

또 너희의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으랴? 생각하며 뛰지 않지만

삼위는 전체를 보시며

너희의 자리에 누가 도전하는지,

또 누가 위태로운지

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계심을 알길 바란다.

나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차원을 높이고,

모두가 성삼위계로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들에게

나 성자가 말하였다.